

F1코리아그랑프리 등 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기록 경신

박지사,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면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에 이어, 6월 9일에는 박재안 기획재정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여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재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참가

공사비 200억원 및 대화운영비 90억원 지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착공 및 착공사업비 1,00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조정, 농림예산을 융자중심의 포괄지원을 건의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지난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방 무역항, 연안항 개발 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830억원 지원, 압해~압태간 새천년

대교 건설 1,000억원, 영광~해제간 영광대교 건설 500억원, 국도 77호선 중 시급한 교량 건설을 위한 사업비 2,600억원 지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을 건의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산지물류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과 미래 식량자원 개발과 수산물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양식어장(양식 섬) 조성 사업비 300억원,

내만을 이용한 친자연형 첨단 바다목장 조성 10억원,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72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국립축산과학원 종축장의 전남 이전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간척지 양도·양수 조기 해결을 건의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남 정영근)

자유총연맹 유봉기 충북지부장 국민훈장 수여

자유수호의지 확산에 기여한 공로 인정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부 유

봉기(사진·삼보종합건설대표이사)지부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릉체육관에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57주년 자유의날 선포식 석상에서 자유수호의지 확산과 섬진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한 공적에 인정되어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 받은 영광을 안았다. 유봉기 회장은 14개 보수단체인 미래 포럼 초대회장을 맡아 오면서 대한민국 안보사업을 통해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재인식시켜 나왔다. BBS연맹 회장을 맡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한편 청소년민주 시민교육에 따른 통일 기반 조성 사업 전개, 그리고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을 통한 동네 행복지킴이 사업과 특히 구제역 발생시 즉각 도내 각 시군 지회와의 협력을 가동, 도내 곳곳의 구제역 지역에서 주야를 무릎쓰고 구제역 소독작업에 힘쓰고 있

는 공직자들을 찾아 위로 격려와 지원등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공로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된 것. 유회장은 앞서 성실 납세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 이번엔 훈장을 받았다. 한편 유회장은 건설업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재양성육성자금과 재난시에는 수천만원씩 헌납하는 아름다움을 보였다. 지난 2010년도 도내 공사수주 3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견 건설업의 산증인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함께 칭송을 받고 있다. (충북 박희상)

71개국서 1,875명이 3,362점 응모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국제공모전 이미지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개국에서 1,875명의 작가가 3,362점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역대 최대 국가에서 최다 작가들이 최대 작품을 응모했다. 이 수치는 같은 시기 진행된 일본의 미노국제공모전, 대만의 도예공모전 등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지진과 원전사고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는 일본에서도 역대 공모전 중 최고인 153명의 작가가 235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소묘사태로 혼란스러운 이집트에서도 14명의 작가가 26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전 참가자 중 최연소자는 19세(1992년 출생)로 공모전을 통해 꿈과 희망을 보여주었으며 최고령자는 99세(1912년 출

생)로 노익장의 예술혼을 과시했다. ‘Ceramik’를 주제로 타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한 이번 공모전은 도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주제와 응모분야 구분 없이 신선한 시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따라 미디어 아트를 비롯한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도자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1차 심사에서는 응모작 가운데 170여점을 선별할 예정이며, 2차 실물심사에서 27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대상에게는 5,000만원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비엔날레 개막식과 국제도자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청된다. 수상작은 9월 24일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시작과 함께 ‘여주 도자세상’의 반달미술관에 서 두 달간 전시된다.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9월 23일 개막하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오는 7월 이전 행사장에 도자테마파크 ‘세라피아’가 열릴 예정으로, 지난 5월 개장한 여주 행사장의 도자소평문화관광지 ‘도자세상’과 함께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불거리가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불의여행”을 주제로 한 본 전시 〈세라믹 코뮌 Ceramic Commune〉과 기획전으로 〈프랑스 도자전〉, 〈섬머&비엔날레 레지던시 작가전〉이 열린다. 올해 새롭게 조성될 “세라피아”에서는 레지던시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환경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체로운 체험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기획전과 〈한중도자교류전〉 및 다양한 중국문화체험 관련 부대행사가 열린다. (경기 김영배)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제1안 공모에서 우수 사업지로 선정됐다. 2012년부터 4개 년간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는데 사랑의 섬 외달도가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랑의 섬 외달도는

섬이 가진 부존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핵심테마를 도출하여 창의적이고 특화된 이미지 창출로 주민소득증대와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는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시는 향후 4년간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단체객숙소, 회의실,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으로 활용할 다목적 수련관과 무

인도·전복 체험장 조성, 약용수목 생태 숲 조성하고 마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자재 등을 보수·보관할 수 있는 물량장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여름철 한시적인 관광지였던 사랑의 섬 외달도가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되어 목포를 찾는 탐방객의 관광욕구 충족과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목포 김정안)

목포자연사박물관, 국내 최대 육식공룡동지화석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국내 최대 육식공룡동지화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신안군 압해도에서 발견해 2년여에 복원과정을 거쳐 전시중인 국내 최대 크기의 육식공룡동지화석에 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육식공룡동지화석은 지난 2009년 10월 신안군 압해

도에서 발견해 2년여의 복원과정을 거쳐서 전시 중인 국내 최대 크기의 육식공룡동지 화석으로 2011년 2월 문화재분류평가회의 개최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산출규모,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발굴 복원된 화석은 국가귀속문화재로(2011. 5. 30일자) 결정되었으며 보관·관리는

전문기관인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할 경우, 발굴자료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정하게 된 다. 한반도 육식공룡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육식공룡알동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화석산지가 아닌 화석 단일

개체로써는 국내 최초로 지정되는 것으로 그 가치와 활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석은 현재발굴과 정밀 복원작업을 거쳐 육식공룡알 19개가 포함된 직경 약 230cm 무게 3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크기의 알과 동지를 지난 5월 5일부터 상시적인 관람과 보존처리가 가능한 상설전시관을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마련하여 공개 중이다. (목포 이석호)

울진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 입상작 발표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1 울진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이

고 창의적인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녹색상품, 관광객 선호 쇼핑품목

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접수해 2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지난 2일 봉평신라비 전시관에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일반인 선호도, 대표성 및 독창성, 상품화가능성, 디자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대상1, 금상1, 은상2, 동상4, 장려상 8점으로 총 16점이 선정됐다. 박노선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사기를 높이고, 더 좋은 기념품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회원 복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간 2억원 지급

● 복지금

종류	구분	금액	비고
결혼	본인	100,000원	
장기근속회원	가입경력순	200,000원	50명
사망	본인	500,000원	운행중사망 1,000,000원
교통사고로 인한 위로금	4주이상입원	50,000	
	8주이상입원	100,000원	
장학금	고등학생	300,000원	50명
	대학생	400,000원	50명
폐지 및 양도	협회 내규(별표1)		

● 전별금

가입경력	지원금
5년미만	5만원
5년이상~10년 미만	10만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만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만원
20년 이상	25만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더 많은 회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웅 희
전화 : 031)251-6903 ~ 5 팩스 031)251-8625